

# FTA BRIEF

글로벌 공급망 다변화 시대,  
수출기업의 FTA 활용 실태와 시사점

Vol. 08  
October 2025



한국원산지정보원

# 한국원산지정보원

- ☑ 한국원산지정보원은 본격적인 Mega-FTA 시대를 맞이하여 수출입물품의 원산지정보 수집·분석과 활용 및 검증을 지원함으로써 우리 기업의 수출 경쟁력 확보 및 국가의 관세행정 정책 수립에 기여하고 있는 전문 기관입니다.
- ☑ 한국원산지정보원은 「FTA BRIEF」를 통해 자유무역협정(FTA)과 원산지 관련 수집 정보와 주요 이슈를 분석하여 기업들이 FTA 원산지 정보를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정기간행물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한국원산지정보원 사업

### 활용연구

FTA 활용률 통계 산출  
FTA 관세율 정보 제공  
수출입 기업 FTA 활용 지원

### 정책연구

FTA 협상 지원  
FTA 정책 지원정보  
원산지 규정 분석 및 해석

### 신통상규제 연구

수출입 규제 수집 분석  
원산지판정 사례 분석  
국제통상 정책 동향 수집 분석

## FTA·원산지 연구

관세청 FTA  
이행 지원

수출입기업  
지원

### 원산지검증 지원

국내·외 품목·산업 동향 수집 분석

###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 지원

인증수출자 인증 예비조사

### 원산지관리시스템(FTA-PASS) 운영

중소기업 대상 원산지관리시스템 제공

### FTA 전문인력 양성

FTA 활용 기업을 위한 맞춤형 교육  
전문자격제도 운영 및 도서발간



\* 사진 출처 : Freepik

### ‘한-미 품목번호 연계표’ 목재 및 파생제품 대상품목 공개

- ☑ 관세청은 우리 수출업체 지원을 위해 목재 및 파생제품의 한-미 품목번호 연계표를 공개하였다.
- ☑ 대상 품목은 미국 정부가 10월 14일(미 동부 시간 00:01)부터 상호관세 적용을 시행함에 따른 것으로, 수출기업이 해당 품목의 적용 여부를 신속히 확인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제공된 것이다.
  - 품목번호는 7단위 이하의 경우 동일한 품목이라도 국가별 분류 기준 차이로 인해 우리 기업이 수출 신고서에 기재하는 품목번호와 미국측 품목 번호가 불일치할 수 있다.
  - 해당 연계표는 미국이 공개한 미국품목번호(HTS) 목록을 한국품목번호(HSK) 10단위 품목으로 연계함으로써, 우리 수출 제품이 부과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 ☑ 현재까지 제공된 연계표는 철강·알루미늄·구리·자동차·자동차 부품·목재 등의 관세 부과 대상 품목군에 해당하며, 향후 관세청과 한국원산지정보원은 반도체·의약품 등 추가 개정 사항을 지속 모니터링하여 제공하고자 한다.

\* 해당 자료는 (1) 한국원산지정보원 ▶ 발간자료 ▶ 신통상 정보 ▶ 동향 정보 또는 FTA 포털 ▶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 글로벌 공급망 다변화 시대, 수출기업의 FTA 활용 실태와 시사점



[ 글\_오윤진 한국원산지정보원 활용연구팀장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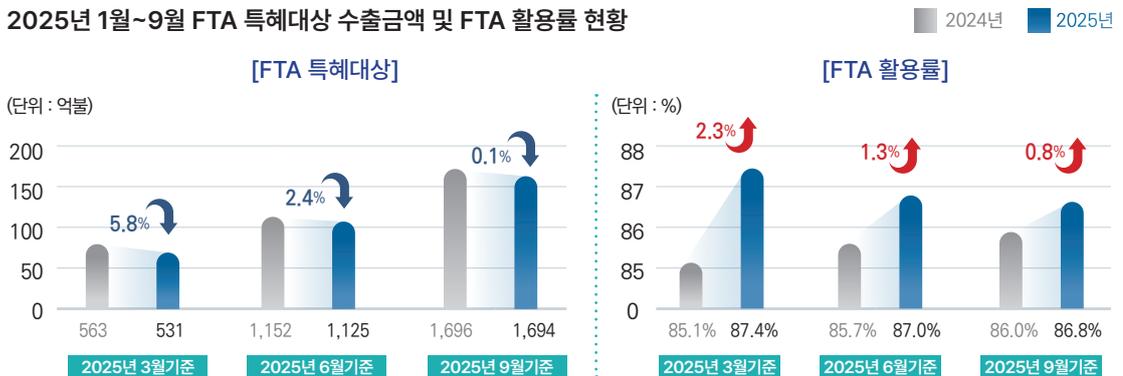
## 1. 들어가며



최근 국제 통상환경은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확산,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 복합적 요인으로 인해 전례 없는 불확실성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변화는 자유무역의 기반을 위협하며,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 기업들에게 새로운 대응 전략을 요구한다.

과거 자유무역협정(FTA)은 단순히 관세 인하를 통한 비용 절감과 시장 확대의 수단으로 인식 되었으나, 현재는 그 중요성이 한층 커지고 있다. 실제로 2025년 상반기 기준 우리나라의 FTA 특혜대상 수출액은 1,125억 달러로 전년 대비 2.4% 감소하였지만, FTA 활용률은 87.0%로 1.3%p 상승하여 불확실한 대외 환경 속에서도 기업들이 FTA를 적극적인 대응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FTA는 고관세 부과와 예측 불가능한 통상 규제 리스크에 대응하는 동시에, 안정적인 해외 시장 접근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핵심 인프라로 기능하고 있다.

● 2025년 1월~9월 FTA 특혜대상 수출금액 및 FTA 활용률 현황



본 고에서는 이러한 맥락에서 FTA를 활용하는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기업들이 체감하는 활용 실태와 그에 따른 정책적 지원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 2. 조사개요



본 조사는 급변하는 글로벌 통상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나라 수출기업의 FTA 활용 현황과 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기업들이 실제로 겪고 있는 애로사항을 파악하고자 기획되었다.

2025년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 총 605개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하였으며, 응답 기업의 규모별 분포를 보면, 중소기업이 539개사(89.1%)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중견 기업은 59개사(9.8%), 대기업은 7개사(1.2%)로 나타났다.

설문 문항은 기업들이 FTA를 실제 활용하는 목적부터 활용 과정에서 겪는 구체적 애로사항까지 폭넓게 파악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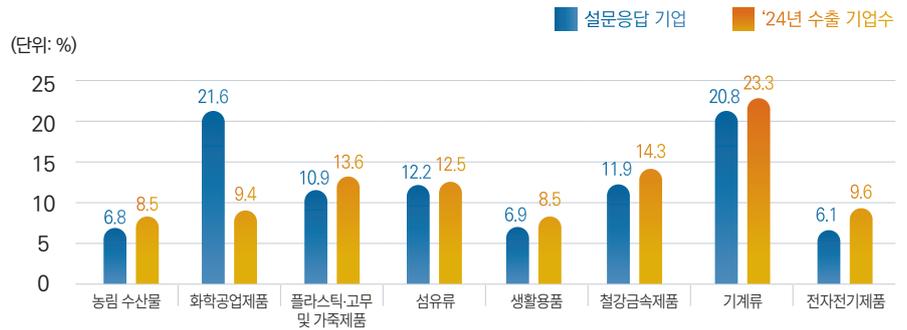
### 3. 조사 결과



이번 조사에 응답한 수출기업 605개사를 산업군별(MTI 1단위 기준)<sup>1)</sup>로 분류한 결과, 화학공업제품(21.6%)과 기계류(20.8%)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이어 섬유류(12.2%), 철강금속제품(11.9%), 플라스틱·고무·가죽제품(10.9%) 순으로 나타났으며, 생활용품(6.9%), 농림수산물(6.8%), 전자전기제품(6.1%)이 뒤를 이었다.

또한, 조사 응답 기업의 산업군별 분포는 2024년 기준 전체 수출기업의 산업군별 분포와 전반적으로 유사한 양상을 나타냈다. 이는 본 설문조사의 응답이 실제 우리나라 수출기업의 산업별 구조를 일정 부분 반영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 ● 전체 수출기업 산업군별 응답 비중



◎ 자료 출처: '기업무역 활동 통계, 관세청 자료를 연구자가 재가공하여 '24년 수출기업 수 비중을 산출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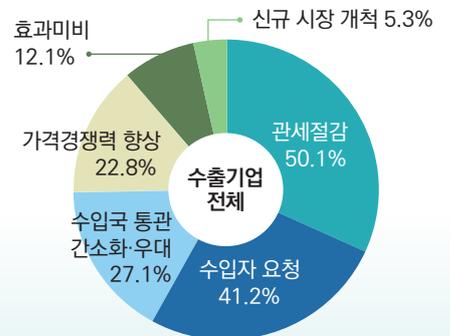
#### 1) 기업이 체감하는 FTA 활용 효과

기업들이 FTA 활용을 통해 얻는 가장 큰 효과로는 관세 절감(50.1%)을 꼽았으며, 이어 수입자 요청(바이어 요구 충족)(41.2%), 수입국 통관 간소화·우대(27.1%), 가격 경쟁력 향상(22.8%) 순으로 조사되었다.

#### ● 'FTA 활용 효과' 조사 결과

Q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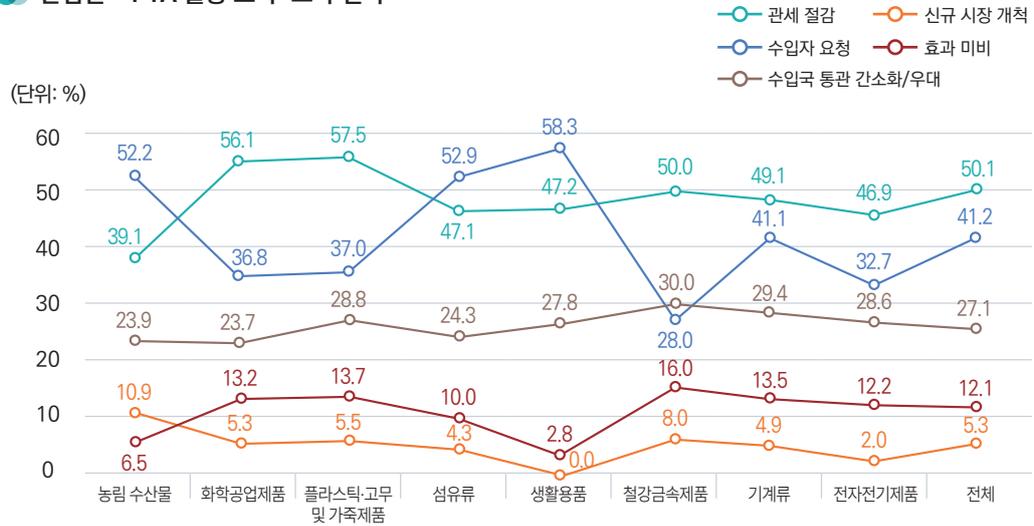
FTA 활용을 통해 체감한 주요 효과는 무엇입니까? (선택형, 중복 응답 가능)



1) 산업통상자원부의 품목분류표(MTI, Ministry of Trade and Industry Code)의 약칭으로 우리나라 산업별 수출입 통계를 분석하기 위해 해당 산업의 관련 HS Code를 연계하여 재구성한 체계를 말하며, 본 고에서는 대분류(MTI 1단위) 기준의 정보를 제공한다

산업별로 살펴보면, 플라스틱·고무·가죽제품(57.5%), 화학공업제품(56.1%)과 철강금속제품(50.0%)은 [관세 절감 효과]를 가장 크게 체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생활용품(58.3%)과 섬유류(52.9%), 농림수산물(52.2%) 기업들은 [수입자 요청]의 응답 비중이 더 높았다.

● 산업별 : 'FTA 활용 효과' 조사 결과



수입자가 실질적으로 체감하는 관세 부담은 MFN 관세율 수준과 직접적으로 연결된다. 조사 대상 국가 중 응답 비중이 가장 높았던 미국을 예시로 살펴보면, 미국의 MFN 평균 환산관세율<sup>2)</sup>(2025년 6월 기준)은 2.09%로 나타났다.

산업별로는 섬유류(13.61%), 생활용품(4.05%), 플라스틱·고무·가죽제품(3.80%)은 평균 대비 상대적으로 높은 MFN 관세율을 기록하였다. 이들 산업군에서는 수입자가 FTA를 통한 관세 혜택(관세 절감 효과)을 적극적으로 요구하게 되며, 설문에서도 섬유류와 생활용품의 기업들이 [수입자 요청]을 높게 응답한 결과와도 일치한다.

반면, 전자전기제품(0.71%)과 철강금속제품(1.40%)처럼 평균보다 낮은 MFN 관세율을 보인 산업군에서는 [수입자 요청]에 의한 FTA 활용 체감도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특히, 플라스틱·고무·가죽제품(3.8%)은 평균을 상회하는 MFN 관세율을 보이는 동시에, 설문에서 [관세절감 효과]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해당 산업군의 기업들이 FTA를 통해 직접적인 비용 절감 효과를 체감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 미국의 산업별 가중 평균 환산 관세율(MFN)



© 자료 출처 : USITC

주 : USITC 관세율표(HTS 8단위 기준 MFN 관세)와 2025년 1~6월 미국 수입 금액·수량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가 환산 관세율을 재산출함(종량세 적용 품목의 경우 증가세로 환산 후, 관세가치를 가중치로 적용하여 산출한 가중평균치임)

2) 미국의 산업별 가중 평균 환산 관세율이란 각 품목의 수입액(2025년 6월 기준)을 가중치로 반영하여 산출한 환산 관세율로 실제 교역에서 산업이 부담하는 평균 관세 수준을 보여주는 지표이며, 관세율이 2.09라는 것은 평균적으로 가격 대비 약 2.09% 수준의 관세가 부담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아울러 기업들은 서술형 응답을 통해 FTA 활용이 관세 절감 효과에 그치지 않고, 신규 시장을 개척에 기여하고 있음을 강조하였다. ‘철강금속제품 기업은 FTA 활용으로 경쟁사 대비 가격 경쟁력을 확보했을 뿐만 아니라 이를 기반으로 신규 거래선을 확대할 수 있었다.’고 응답하였다. 화학공업제품 기업은 ‘K-뷰티 성장세에 힘입어 FTA 체결국과의 교역이 전반적으로 확대되면서 새로운 해외 수요처와의 접점이 늘어났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또한 플라스틱·고무·가죽제품 기업은 ‘미·중 간 관세정책 변화에 따라 일부 중국 발주가 국내 기업으로 이전되면서 수출 기회가 확대되었다.’고 응답하였다. 이러한 응답은 FTA가 단순한 비용 절감 수단을 넘어, 불확실한 통상환경 속에서 안정적인 시장 접근을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로 기능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종합적으로 볼 때, FTA 활용은 관세 절감을 통해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는 동시에, 수입자의 요구를 충족하고 신뢰를 제고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기능하고 있다. 이는 단순한 비용 절감 효과를 넘어, 바이어와의 지속적인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향후 시장 접근성을 확대하는 데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 2) 기업의 FTA 활용 애로사항

기업들이 FTA 활용 과정에서 가장 많이 호소한 애로사항은 원산지 증빙자료 준비 부담(31.2%)이었다. 이어 원산지결정기준(PSR) 적용의 어려움(23.1%), 원산지 증명서(CO) 발급 절차 복잡성(20.5%), FTA 관련 정보 부족(15.4%), 환율 불안정(14.0%) 순으로 나타났다. 그 밖에 통상 리스크(9.4%), 수출입 시스템 연계 미비·인력 부족(7.4%), 협정문 해석의 모호성(6.4%), 수입국 통관규제 강화(6.1%) 등이 조사되었다.

### ‘FTA 애로사항’ 조사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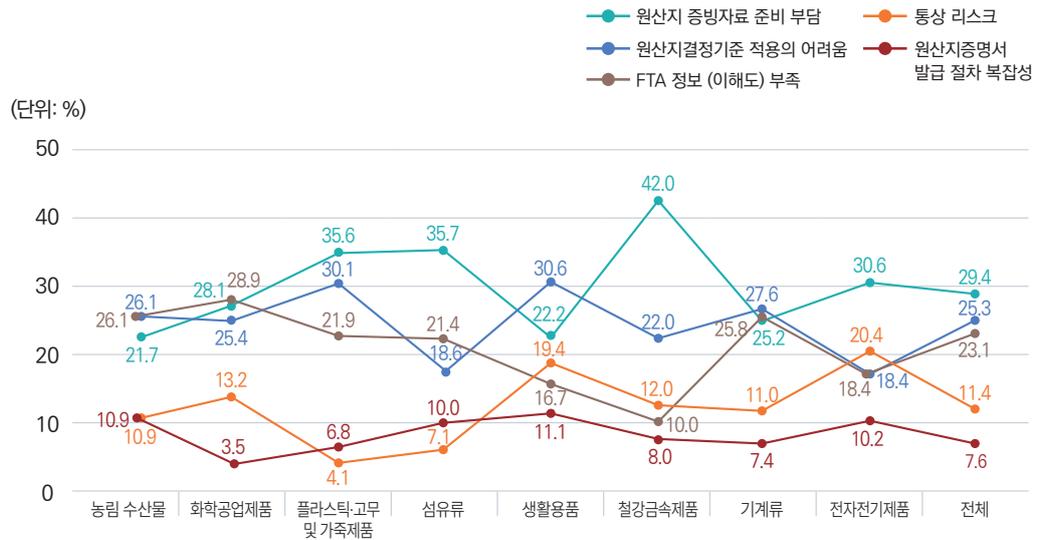
Q FTA 활용 과정에서 겪는 애로사항의 주된 원인은 무엇입니까?(선택형, 중복 응답 가능)

- ✓ 원산지 증빙 자료 부담 : 31.2%
- ✓ PSR(세부 원산지결정기준) 어려움 : 23.1%
- ✓ CO 발급 절차 복잡 : 20.5%
- ✓ FTA 정보 부족 : 15.4%
- ✓ 환율 불안정 : 14.0%
- ✓ 통상 리스크(통상 제재·지정학적 리스크) : 9.4%
- ✓ 수출입 시스템 연계 미비·인력 부족 : 7.4%
- ✓ 협정문 해석 모호 : 6.4%
- ✓ 수입국 통관규제 강화 : 6.1%
- ✓ 품목분류 해석 불일치 : 4.5%
- ✓ FTA 활용 실익 미미 : 3.6%
- ✓ 바이어 미요구 : 2.3%
- ✓ 실질적 변형 기준 충족 : 1.5%
- ✓ FTA 활용조건 불충족 : 1.2%



주요 애로사항 문항에 대한 산업별 응답을 보면, [원산지 증빙자료 준비 부담]은 철강금속제품(42.0%), 섬유류(35.7%), 플라스틱·고무 및 가죽제품(35.6%) 순으로 나타났으며, [원산지결정 기준 적용의 어려움]은 잡제품(33.3%), 생활용품(30.6%), 플라스틱·고무 및 가죽제품(30.1%)에서 높게 나타났다. [FTA 정보 부족]은 잡제품(66.7%), 화학공업제품(28.9%), 농림수산물(26.1%)에서 비중이 컸으며, [통상 리스크]는 전자전기제품(20.4%), 생활용품(19.4%), 화학공업제품(13.2%)에서 응답이 많았다. 마지막으로 [원산지증명서 발급 절차 복잡성]은 생활용품(11.1%), 농림수산물(10.9%), 전자전기제품(10.2%)에서 높게 나타났다.

● 산업별 : 'FTA 애로사항' 주요 조사 결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철강금속제품 산업군은 [원산지 증빙자료 준비 부담]이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지적되었다. 철강은 원료-중간재-최종재의 단계적 생산 구조를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의 경우 원재료를 대기업이나 외부로부터 조달하는 비중이 높다. 이 과정에서 원산지 입증자료의 확보가 원활하지 않아 관련 증빙자료 준비 과정에서 상당한 부담을 겪고 있다는 응답이 확인되었다.

섬유산업 역시 [원산지 증빙자료 준비 부담]이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섬유 기업들은 지속적으로 사후 검증과 심사의 집중 대상으로 분류되어 특히 원산지증명서 발급에 상당한 부담을 안고 있다. 이는 해외 임가공과 보세가공무역이 활발한 섬유산업 특성상 재수입되는 원재료의 원산지 적정성 점검이 꾸준히 요구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플라스틱·고무 및 가죽제품 산업군은 [원산지 증빙자료 준비 부담]과 [원산지결정 기준 적용의 어려움]을 동시에 호소하였다. 중소기업과 영세기업의 비중이 높아 자체적으로 원산지 증빙자료를 준비하거나 결정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었으며, 특히 한-아세안 FTA, RCEP 등 기관 발급이 요구되는 협정의 경우 세부 절차가 복잡해 FTA 활용에 애로가 크다고 응답하였다.

농림수산업의 경우 [FTA 정보 부족]과 [원산지증명서 발급 절차 복잡성]이 주요 문제로 지적되었다. 식품 분야는 수입국별 검역 및 표시기준 등이 수시로 강화되지만 관련 정보가 분산되어 영세기업의 대응이 어려운 실정이다. 실제로 최근 3년간(2022~2024년) 한국산 농수산물 검역 부적합 사례는 1,025건에 달했으며, 주요 위반 사례는 표시기준 위반이 가장 많았다. 즉 FTA 활용을 위한 원산지

증명서 발급 과정과 더불어 관련 최신 규정을 반영한 증빙서류 준비가 기업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함을 보여준다.

서술형 응답에서도 가장 많이 언급된 애로사항은 [원산지 증빙자료 준비 부담]이었다. 기업들은 투입원자재의 원산지 확인, 강화된 원산지 검증 요청 대응 과정에서 다양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답했다. 또한 트럼프 행정부의 통상정책 불확실성으로 인해 우리 기업들이 직면하는 애로사항도 확인되었다. 일부 기업은 “자동차부품에 대한 추가관세 부과로 가격 경쟁력이 약화되었다”, “추가관세 부과로 향후 수출 전망이 불투명하다”라고 응답하였으며, 다른 기업들은 “한-중 연결공정 제품<sup>3)</sup>에 대해 특혜 원산지결정기준(세번변경기준)은 충족되지만, 일반원산지 판정 기준이 상이하여 원산지 규정 적용이 혼란스럽다”라고 언급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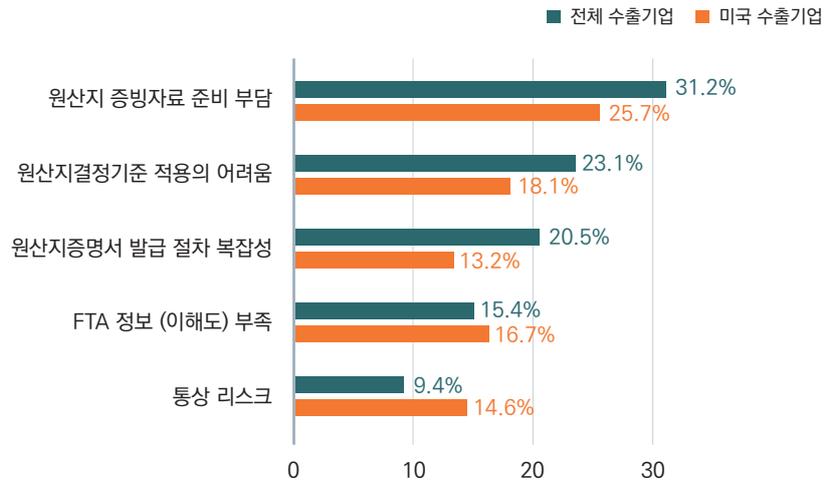
수출기업의 FTA 활용 애로사항(일부 발췌)

<p>공통</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FTA 활용 경험이 적다보니 HS CODE 확인부터 원산지 증명서 발급까지 절차가 복잡하다고 인식되고 있음, 또한 사내 전담인력도 부족해서 적극적으로 FTA를 활용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 (전 산업군)</li> </ul>
<p>원산지 증빙 자료 부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미국의 철강·알루미늄 관세 인상에 따라 원자재 수입국 정보를 요청받았으나, 납품 업체가 자료 공개를 거부하여 대응에 어려움이 발생함(기계)</li> <li>미국에서의 FTA 검증 요청이 강화되면서, 원산지 증빙자료 등 검증자료 준비에 과도한 인력과 시간적 비용이 소요됨(기계, 전자전기제품)</li> <li>수출 과정에서 부품 중 일부가 제3국산으로 분류되어 최종 제품이 FTA 원산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례 발생, 이로 인해 관세 혜택을 받지 못하고 거래처와의 가격 경쟁력에서 불이익을 경험함(생활용품)</li> </ul>
<p>원산지결정기준 충족 어려움 (품목분류 해석의 불일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당사에서 제작한 자동차 부품이 국내에서는 제8708.50호(자동차장치를 갖춘 구동 차축 부분품)에 분류되나 미국에서 제8708.99호(그 밖의 차량 부분품)로 분류되어 FTA 활용 시 애로가 발생함(기계)</li> </ul>
<p>통상 리스크 정보부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트럼프 정부 이후 보호무역 강화 기조가 지속되면서, 향후 FTA 활용에 부정적 영향이 있을까 우려됨(기계)</li> <li>對미 수출품목의 90% 이상이 FTA 활용 대상이나, 자동차부품에 품목별 추가 관세가 부과되면서 가격 경쟁력이 약화됨(철강금속제품)</li> <li>한-중 연결공정 제품에 대해 특혜 원산지결정기준(세번변경기준)은 충족되나, 일반원산지는 판정 기준이 상이하여 판정에 어려움이 있음(전자전기제품)</li> </ul>

특히 [통상 리스크]는 전체 수출기업의 평균 응답(9.4%)보다 對미 수출기업에서 더 높은 비중(14.6%)을 보였다. 다수의 기업이 미국의 추가관세 부과를 직접적 요인으로 꼽아 최근 미국 통상정책 변화가 우리 기업의 수출환경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3) ‘한-중 연결공정제품’이란, 중국산 원재료를 사용하거나 중국공장에서 임가공을 하는 등 제조 가공 공정이 중국과 밀접히 연관된 제품을 말한다. 미국으로 수출시 한-중 연결공정제품의 원산지 판정은 ‘19 CFR 134’에 따라 품명(name), 특성(character), 용도(use) 등 3가지 요소가 실질적으로 변형되었는지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된다.

③ 전체 수출기업, 미국 수출기업 : 'FTA 애로사항' 주요 조사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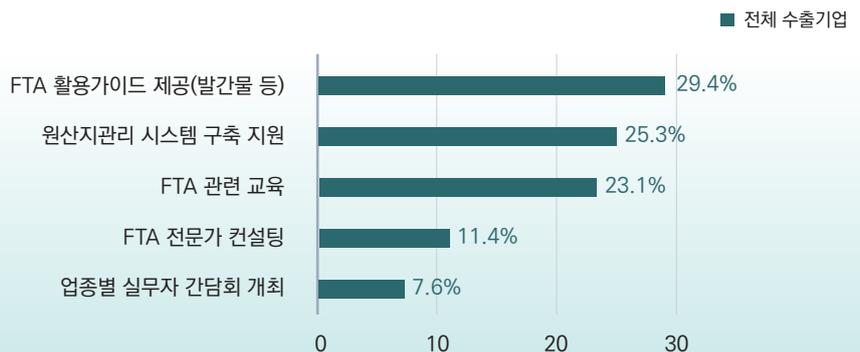
반면 [원산지증명서 발급 절차 복잡성]은 전체 수출기업 평균 응답률(20.5%)에 비해 對미 수출기업에서는 낮은 수준(13.2%)으로 나타났다. 이는 미국의 경우 수출자가 자율발급 방식으로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애로사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인식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절차적 복잡성 자체는 여전히 기업들에게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결국 선택형과 서술형 응답을 종합해 보면, 우리 기업이 현시점에서 가장 크게 체감하는 애로는 원산지 증빙자료 준비와 원산지 규정 관련 대응, 그리고 통상 리스크 상황에 따른 정보 부족으로 요약된다.

3) FTA 활용을 제고하기 위해 필요한 지원

기업들은 효율적인 FTA 활용을 위해 수출품목별(산업별) FTA 활용 가이드 제공(29.4%)과 원산지관리 시스템 구축 지원(25.3%)을 가장 필요한 지원 사항으로 응답하였다. 그 외에도 FTA 관련 교육(23.1%), FTA 전문가 컨설팅(11.4%), 업종별 실무자 간담회 개최(7.6%) 등이 뒤를 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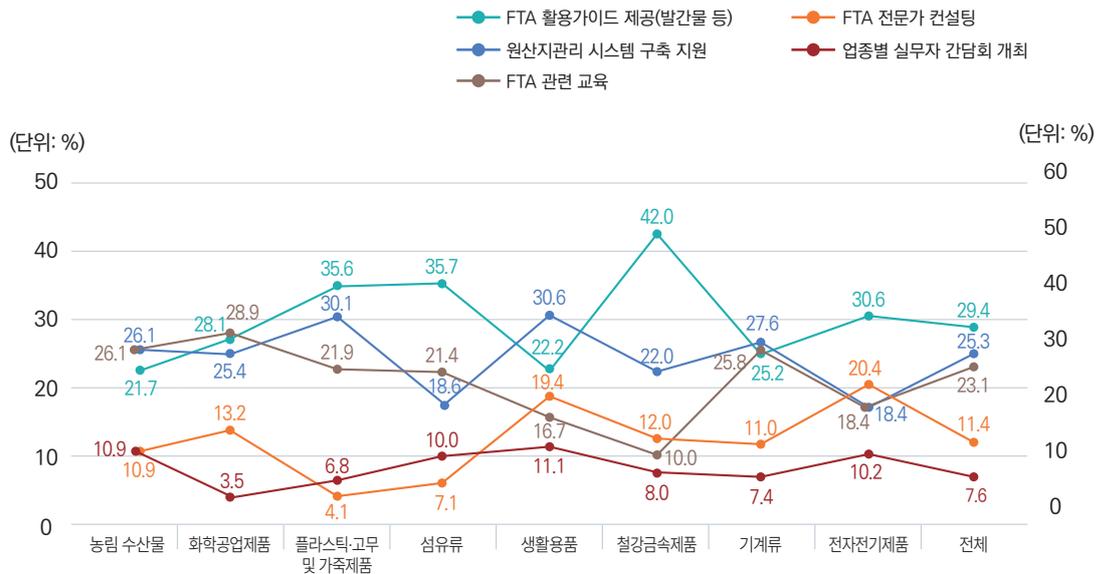
③ 'FTA 활용을 제고하기 위해 필요한 지원' 주요 조사 결과



산업별로는 전반적으로 모든 문항에서 지원 필요성이 고르게 나타났으며, 서술형 응답에서는 주로 對미 수출기업들의 의견이 두드러졌다. 최근 미국의 관세체계 개편 및 통상 규제 불확실성에 기인한 것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FTA 수출기업의 산업별 : 'FTA 활용을 제고하기 위해 필요한 지원' 주요 조사 결과

Q FTA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어떤 형태의 지원이 필요하다 생각하십니까? (선택형)



전자전기제품의 경우, [FTA 활용 가이드 제공] 필요성이 크게 제기되었다. 미국 관세정책 변화로 인해 FTA 특혜 원산지 판정과 일반 원산지 판정 기준의 불일치, 전기차 배터리 등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과 연계된 품목에 대한 원산지 판정 불확실성이 반영된 결과로, 기업들은 제도적 복잡성 속에서 실무 적용에 참고할 수 있는 구체적 가이드 마련을 요구하였다.

철강금속제품의 경우, [FTA 활용 가이드 제공]과 [원산지 관리 시스템 구축 지원] 수요가 높았다. 철강은 對미 품목별 관세<sup>4)</sup> 부과 품목이자 관세 환급<sup>5)</sup> 이슈가 발생할 수 있는 분야로, 관련 쟁점은 전문지식과 시의성 있는 정보가 요구되는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기업 내부 전담 인력이 부족하다는 점에서 외부 전문가 지원과 구체적 활용 지침의 필요성이 높다는 응답이 확인되었다.

또한 일부 기업은 원산지 증빙 과정에서 발생하는 행정적 부담을 지적하며, 서류 절차의 간소화와 기관 발급 비용에 대한 국가 차원의 지원을 요청하였다. 특히 중소기업은 인력과 비용 여력이 부족하여 발급 수수료와 행정 처리비용이 상대적으로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어, 정부 차원의 비용 지원이나 절차 간소화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4) 품목별 관세는 무역확장법 제232조를 근거로 자동차·자동차 부품, 철강·알루미늄 및 파생상품에 대한 관세부과에 이어, 8월 1일부터 반제품 구리와 구리 파생상품 관세가 추가되었다.

5) 美관세환급(refund)방법에는 일반적으로 ①drawback(드로우백)\*, ②PSC(Post Summary Correction), ③이의신청(Protest)이 있다. 단, 무역확장법 제232조 관세에 대해서는 drawback(드로우백)이 허용되지 않는다.(美 연방관보)

\* 특정 조건(수입된 물품이 미국 내에서 사용되지 않고 다시 수출되는 경우 등)에 해당하는 경우, 수입 시 납부한 일부 관세 및 세금 등을 환급해주는 제도

결론적으로 기업들은 FTA 체약상대국 전반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제도적 불확실성과 복잡성에 대응하기 위해, 산업별·품목별 시의성 있는 FTA 활용 가이드 제공, 체계적인 원산지관리시스템 구축 지원, 그리고 전문가 컨설팅을 통한 맞춤형 대응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이는 기업들이 변동성이 큰 국제 통상환경 속에서도 안정적으로 FTA를 활용하고자 하는 기대를 반영한다.

#### 4. 시사점



우리 수출기업 FTA 활용 실태조사 결과, 통상환경의 불확실성과 다양한 애로에도 불구하고 우리 기업들은 FTA를 적극 활용하여 가격 경쟁력 제고와 시장 점유율 확대를 도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예측하기 어려운 통상 규제와 시장 환경 속에서 FTA를 통한 관세 절감 효과가 더욱 크게 체감되고 있으며, 이는 불안정한 대외 여건 속에서도 여전히 FTA가 기업의 안정적 수출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제도적 기반임을 보여준다.

다만, FTA가 성숙기에 접어든 현시점에도 원산지 판정 및 관련 규정 해석의 어려움, 시의성 있는 정보 부족, 통상 리스크 등은 여전히 주요 애로사항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문제는 단순한 절차적 문제를 넘어 기업의 비용 부담과 수출 전략에 직접적인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향후 정책적 지원은 모든 산업군에 공통적으로 필요한 지원과 함께, 국가별 규제 환경과 산업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접근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품목별 관세(무역 확장법 제232조에 근거)가 부과되는 對미 수출 철강제품의 경우 원산지 판정과 관련된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구체적인 가이드와 전문가 컨설팅이 요구된다. 이러한 시의성 있는 정책 지원이 병행될 때 우리 기업들의 FTA 활용 역량은 더욱 효과적으로 제고될 수 있을 것이다.



# FTA BRIEF



한국원산지정보원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



물자유이용허락



저작물은 "공공누리 4유형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 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ISSN 3022-7984